

#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에 4조8000억 생산 효과

## 3만6297명 취업 ...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지역경제 긍정적 영향

### 국방부 발표

광주군공항 이전에 따른 전남도의 생산 유발효과가 4조8299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이전 후 보지 주민 및 지자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18일 광주 군 공항을 전남도로 이전할 경우 신공항 건설에 6년간 3조 5539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생산유발액은 연간 8050억원 등 모두 4조8299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연간 2844억원 등 합계 1조7065억원으로 추정했다. 취업 유발인원은 연간 6050명 등 3만6297명이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MRIO)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MRIO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관련 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되고 판매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 이전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조성, 마을회관 및 저온저장고 신축 등 주민생

활 지원사업, 공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며 먼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기부대양여’로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주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 그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군공항 이전지는 기존 공항보다 동등하

거나 그 이상의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 대상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군공항은 지난 2013년 예비이전지 후보지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될 전남도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군공항 이전 문제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6년간 4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원공항과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5조5751억원(연간 9292억원), 7조2899억원(연간 1조2150억원)으로 분석됐다.

/\*윤현식기자chadol@kwangju.co.kr

### 뉴스&정보 브리핑

#### 쌀 수요초과분 25만t 시장격리 잠정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수급 급이 불안정을 방지하고 격리 효과를 안정을 위해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수요초과분 2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쌀의 실제 수확량은 11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쌀 시장 및 수

급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격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10월 말부터 시장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격리 물량 25만t은 통계청의 예상생산량 420만2000t을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 기존 건축물도 내진설계 보강면 지방세 면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감면된다.

#### 아파트 입주민, 관리소 간접흡연 중단요청 따라야

아파트 입주자 등은 층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층간 흡연 피해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530건을 집계했는데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808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원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 “호남고속철 2단계

#### 무안공항 경유 노선 등

#### SOC 적극 지원해 달라”

####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에 요청

전남도가 수년간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추진,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등에 대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사력’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1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협력을 구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현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 부의장, 천정배·주승용·김동철·최경환·송기서·이용주·손준주·정인화·황주홍·윤영일·박준영·이동섭·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의원 18명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날 전남지사는 신규 예산반영이나 증액을 바라는 주요 현안 25건, 지역별 관심사업 30건에 대한 국비 지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추진 ▲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단선 전철 건설 ▲ 여수~남해 도로 건설 등이다.

/\*윤현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전남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조원 광주시 금고 잠기 ‘불꽃 경쟁’ 본격화

### 내달 3일까지 서류 열람

### 4일 신청제안서 접수

### 설명회 5개 금융기관 참여

올 연말로 만료되는 4조원대 광주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시중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광주시 금고 지정 신청을 위한 제안공고를 하고, 이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가졌다. 시금고 선정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관련 서류 열람을 거쳐 4일 신청제안서를 받게 된다.

설명회에는 현재 1, 2 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을 비롯한 농협과 신

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시중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현재로서는 몇 개 금융기관이 신청제안을 할 지는 모르지만 최대 5파전 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9~12명 이내로 금고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11월 말까지 지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관련 단체에 복수추천을 의뢰해 시의원, 교수, 금융전문가 등으로 선정하되 과반은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2012년 심의위원 수는 10명이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초 운영기관 선정 기준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확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중앙·지방 은행별로 유·불리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지역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다.

금고지정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이 1금고로, 2순위는 2금고를 맡게 된다. 1금고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등 특별회계 11개, 2금고는 수질개선 등 특별회계 4개와 재해구호기금 등 기금 16개를 관리하게 된다.

약정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4년이다. 광주시 금고 규모는 2012년 기준 1금고가 전체 예산 3조5629억원 중 3조4776억원, 2금고는 853억원이다.

올해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1금고는 4조 2900억원, 2금고는 1240억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가 결과 공개는 금고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공개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몇 개 금융기관이 신청제안서를 넣지는 미정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함경북도 수해지원·쌀값 대책 결의안 가결

#### 광주시의회 이미옥 의원 발의

광주시의회는 18일 ‘함경북도 수해 지원과 쌀값 안정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미옥(비례)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정부와 국회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되는 쌀수급 불균형을 중단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통한 비축미 조절로 농업인과 쌀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쌀값안정화기금을 마련해 광주지역 쌀을 구매해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

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교류 및 접촉을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쌀 수급대책이 필요한 시기 수해 피해가 극심한 함경북도 지역에 쌀을 지원하면 남측의 쌀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 수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학부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 전형일정

-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형일 : 2017. 1. 12(목)

### 대학원

#### ▶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1(화)
-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16. 11. 4(금) 오후 3시

#### ▶ 일반전형

- ① 원서접수 : 2016. 10. 25(화) ~ 11. 8(화)
-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2016. 11. 11(금) 오후 2시30분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석사	목회학과(D.Min.)	2	2016. 11. 11(금) 오전 9시 40분
		신학과(Th.M.)	2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10	2016. 11. 12(토) 오후 2시40분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2016. 11. 12(토) 오후 2시 40분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